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I

윤효원

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현재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노동자들에게 인원축소, 실질임금의 감소, 삶의 질의 악화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노동계급도 나라별,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로 단결하기보다는 분열하고 반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도전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아직 공세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대단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다.

빈곤과 불평등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그나마 일구는 삶의 질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더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분열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단결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도전은 복잡하고 대응은 쉽지 않다.

세계화의 신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맞서 노동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자본과 지배계급 중심의 위로부터의 세계화 에 맞선 노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노동운동 진영이 하루 빨리 전략과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은 매일 제기되고 있지만 주장에만 그칠 뿐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해답은 아직 노동운동진영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미우상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나마 세계화의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책들도 내용이 추상적이고 어려워 배웠다는 사람들 도 읽기 어렵게나, 아니면 실무와 현안에 너무 얽매어 문제의 본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틈에 남아프리카의 「노동조합연구프로젝트」(Trade Union Research Project)가 만든 「세계경제 속의 남아프리카를 우리 시장에 맞게 고쳐 소개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란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혹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인유로 편집실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5~6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물론 내용도 한국 상황에 맞도록 고치고, 보기 좋고 읽기 쉽도록 정리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서문과 제1장을 소개한다. 이 글이 노동조합의 토론과 교육에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 — 편집실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제2장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제3장 세계무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제4장 세계경제의 주인

제5장 세계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6장 국제 부채, IMF와 세계은행

제7장 돈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고...

국제 금융 이야기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제9장 세계화에 대한 대응

들어가면서

어느 토요일 아침, 허씨 부인은 열살 먹은 딸아이의 징징대는 소리에 잠을 깬다. 딸아이는 허씨 부인에게 (인도네시아의 하청노동자가 만들고 미국에서 수입한) 리바이스 청바지와 (미국에서 수입한)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라댔다. 허씨 부인은 비싼 물건은 사줄 수 없다고 딸아이를 달랬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가 시설과 장비를 임금이 싼 중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안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요즘 가게를 꾸릴 걱정에 정신이 없는 터였다. 대신 허씨 부인은 딸아이에게 동네 시장의 할인매장에서 값싼 중국제 청바지와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딸아이에게 약속했다.

허씨 부인은 인원감축으로 다음달 잘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골치가 아팠다. 그녀는 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미

국에서 수입한) 아스피린을 먹은 다음, (중국의 하청노동자가 만든) CD가 딸린 삼성 라디오를 켜 뉴스를 들었다. 아나운서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 은행 금리가 오르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과 유럽 순방 길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은행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은 허씨 부인을 낙담케 했다. 국민은행에 주택용자금 오천만원을 댄지고 있어, 상환금 부담이 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남편인 허남준 씨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필립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조대의원이다. 필립스 사는 서울에 있는 공장을 폐쇄했고, 여성이 대부분인 공장 노동자들은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 토요일 아침 허씨는 노조의 대책회의에 참가했는데, 그 회의에서 허씨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필립스 본사 항의방문단으로 뽑혔다.

항의방문은 허씨가 속한 노조인 전국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과 네덜란드노총(FNV)과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IMF)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항의방문단은 필립스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계획이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비난할 계획이다. 허씨와 그의 동료들은 필립스사의 모토인 'the Philips-Makes-Things-Better' (필립스는 좋은 물건을 만듭니다)를 빗대 'the Philips-Makes-Things-Worse' (필립스는 나쁜 물건을 만듭니다)를 캠페인의 제목으로 정했다.

허씨는 노동조합 회의를 마친 다음, 금속산업연맹의 조직국장을 따라 서울역 뒤에 있는 연맹 사무실로 갔다. 조직국장은 (대만, 한국, 일본, 독일산 부속품으로 조립된) 컴퓨터를 켜고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IMF)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다.

허씨는 해외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번 여행은 자신의 첫 해외여행이라 암스테르담에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야겠는데,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슈퍼마켓에서 (벨기에에서 수입한) 하이네켄 맥주를 샀다. 지너 식사를 마친 다음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일본에서 수입한) 소니 텔레비전으로 박세리가 출전한 골프경기 녹화 중계를 시청했다.

위에 나온 허남춘씨 가족에 대한 이야

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세계 곳곳의 사건과 조직 그리고 제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사회발전, 경제구조 변화, 정치상황 변동과 일치한다. 이것을 세계화라고 부른다. 세계화란 한국같은 나라들이 세계적인 힘에 점점 더 영향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정부정책과 회사경영, 그리고 노동조합들과 여러 조직과 단체, 무엇보다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노동운동에 던져주었다.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투쟁 형태를 가져왔다. 몇몇 문제는 한국과 세계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장해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가 도전할 수 없는 현실이고 추상적이고 형체가 없는 힘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세계화에 무력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에 맞서 싸울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새롭고 복잡하며 도전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세계화란 무엇인가? 무엇이 세계화를 노동자의 골칫거리로 만들고, 왜 사람들은 수없이 세계화란 말을 들어야 할까? 세계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기업과 정부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각국 정부들과 노동조합들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세력들에게 좌우되면서 무력해져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 장은 다룬다.

세계는 점점 통합되고 있다.

전세계의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세계가 1970년 이래 산업혁명만큼이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주목해 왔다. 이런 변화들은 세계적인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경제의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들은 세계화의 과정으로 불리고 있다.

증거는 어디 있는가?

통합된 세계시장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무역 패턴, 어떻게 돈들이 나라들 사이를 굴러다니는가, 어떻게 정보들이

세계를 가로질러 다니는가, 산업생산의 변화, 정부와 풀뿌리 조직들의 역할, 그리고 과거 십 수년간 우리의 사회활동들이 어떻게 변해왔던가에 주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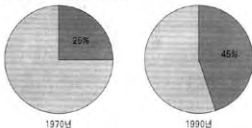
세계 통합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은 더 빨리 이뤄진다.
2. 돈은 더 빨리 돌아다닌다.
3. 세계가 더 빨리 교류한다.
4. 생산이 전세계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5. 각국 정부들이 더 많이 협력한다.
6. 풀뿌리 차원에서 더 많은 국제 연결망이 생겨 나고 있다.
7.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회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1. 무역이 더 빨리 이뤄진다.

세계무역은 나라들 사이에 경제 연결망을 건설하며, 각 나라들이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위해 서로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든다. 1970년대 이래 국제 무역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1970년에는 세계의 재화와 용역 가운데 25%만이 나라들 사이에 거래되었다. 1990년 그것은 45%로 증가했다.

각국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



이 사례는 나라들 사이의 무역이 지난 십 수년간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세계가 더욱 탄탄하게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덜 생산하는 세계 무역의 새로운 패턴들이 생겨났다. 쉽게 말해, 각 나라들은 세계 시장을 위해 생산하고 있으며 자국시장을 위해서는 덜 생산하고 있다. 무역의 증가는 우리 나라의 슈퍼마켓에 다른 나라의 상품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다.

2. 돈이 더 빨리 돌아다닌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10여 년 동안 나라 사이에 더 많은 돈이 굴러다니고 있다. 이러한 돈의 흐름은 무역(수출과 수입), 투자, 외환, 주식 구입을 통해서 돈이 한 나라로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돈의 흐름은 때때로

자본 이동으로 불려진다. 자본 이동의 급격한 증가는 몇 초안에 세계 곳곳에서 투자와 무역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컴퓨터와 팩스 덕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하루에 주인을 바꾸는 돈이 1조 달러(14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세계화하고 있는 경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가 자국 경제를 넘나드는 돈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3. 세계가 더 빨리 교류한다.

1876년 발명된 전화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삶을 변화시켰다.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 팩스, 휴대폰, 인터넷의 발명으로 밀리 떨어진 사람들과 교류가 더 빨라졌으며,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것은 세계 곳곳의 사람과 기업과 정부와 단체와 조직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든다. "정보 혁명" 혹은



무역



의한



해외주식투자



공장 해외이전

자본이동의 사례들

“컴퓨터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혁명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경제를 창조하는 것을 돕는다. 정보 혁명은 19세기에 국민경제(national economy)의 형성을 도왔던 철도의 출현과 비교할 수 있다.

4. 생산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 텔레비전, 전자, 컴퓨터 같은 몇몇 산업에서, 생산은 점점 세계적인 규모에서 조직되고 있다. 이것은 초국적 기업의 힘이 커짐으로써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포드(Ford)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포드 자동차의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노동자가 아니

라,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가 ‘세계적인 차’라는 사실을 뜻한다. 이것은 몇몇 부문에서 생산이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더 이상 국민적인 특징을 가지기보다는 세계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점은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이다.

비슷하게 세계 문화도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상표의 사용과도 상관이 있다. 세계 문화는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이 만들어낸 옷, 신발, 패스트 푸드, 서양의 대중스타로 상징된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햄버거,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나이키, 닌자 거



북이, 레고 장난감, NBA 농구는 성장하는 세계 문화의 상징물이다.

5. 각국 정부들이 더 많이 협력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은 뚜렷하게 증가해왔다. 예를 들면, 각국 정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들을 만들었다. 같은 지역의 정부들은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 같은 강력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국민국가의 울타리

를 넘어 앞으로 더 큰 지역국가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6. 풀뿌리 차원에서 더 많은 국제 연립망이 생겨나고 있다.

여성 권리, 노동자 권리, 환경문제, 동성애자 권리, 군국주의 반대운동 같은 다양한 쟁점을 가진 운동들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국제 회의가 많이 열렸다. 사회단체, 비정부기구(NGO), 여성단체, 노동조합이 세계 곳곳에서 단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풀뿌리 조직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추진하는 만큼 마약거래자, 국제범죄단도 많아지고 있다.

7.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회 활동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의 세계에서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세계 차원의 행사와 한국 야구선수의 미국메이저리그 진출과 미국농구선수의 한국프로농구 진출 같은 국제적인 활동이 늘고 있다. 관광 산업의 발달은 세계 차원의 사회활동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1970년대 이래 엄청난 변화가 세계 차원의 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계화라 불리는 과정이 진행 중이며, 이것이 최소한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의 발전

역사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국제경제의 형성을 향해 움직여왔다. 산업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전환점이었으며, 나라들 사이의 보다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마련하는 것을 촉진했다. 비슷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가 세계경제의 전환점이었으며,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새로운 방식, 즉 세계화의 시대를 열었다 믿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과 1970년대의 위기 사이에 일어난 세계 자본주의의 상태를 간단하게 논의해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창출과 경제발전을 가능케 했던 새로운 구조를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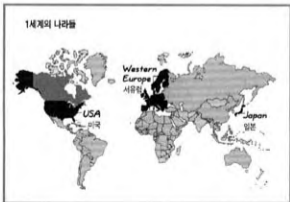
세계대전 이후

- 전쟁으로 파괴된 서유럽과 일본 경제의 재건이 있었다.

- 각국 정부들은 더욱 활발하게 경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들은 전국 차원에서 실업과 경제성장을 관리했으며, 세금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실업수당과 연금, 가족수당, 무상교육, 의료 서비스를 주는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켰다. 국가가 사회보장에 큰 기여를 했고, 이는 사회복지국가로 알려졌다.

- 각국의 국민경제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즉 관세에 의해 보호받았다.

-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과 정부들이 노동자들을 인정하고 협상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만큼 강력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정부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 주요한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IBRD),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전쟁이 끝난 다음 바로 만들어졌다. 미국이 이 기구들을 지배했다.

●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에 출현했다.

● 포디즘(Fordism)이라고 불리는 상품의 대량 생산이 유럽과 일본에 퍼졌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 많은 양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대공장이 생산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 개발도상국들은 독립을 얻었고, 원자재를 수출함으로써 세계경제에 포섭되었다.

이러한 전쟁 이후의 구조는 세계경제가 20년 동안 지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어느 때보다도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세계 차원에서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상품거래는 3배, 서비스 거래는 14배 이상 늘어났다. 선진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 자본주의의 팽창은 한계에 다다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의 토대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속도는 떨어졌고 정부 빚과 실업은 늘기 시작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시기를 세계경제 위기(crisis)의 시작으로 지적하고 있다.

용어명실

경제위기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는 붕괴와 몰락을 뜻한다. 그러나 공황은 실제로 진원점에 다다랐다는 점과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불(boom) 또는 벼락경기와 불리는 선경기와 불경기와 불리는 침체기를 포함하는 경기순환을 통해 발전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벼락경기와 불경기를 순환적인 위기(cyclical crisis)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 벼락경기는 아주 짧은 반면, 불경기는 더욱 나빠진다. 이것은 경제가 세워진 토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일어난다. 그런 진원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경제가 구조적 위기(structural crisis)에 빠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 경제의 재조직이 요구된다.

자본주의는 그런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1930년대에 세계 경제는 대공황이라 알려진 불황을 경험했다. 실업이 높고 은행이 망해 지속적인 여균을 찾을 수 없고 국제 대출은 말라버렸다. 이러한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되었다. 전쟁의 종식은 20년 동안 유행해온 자본주의 체제를 재조직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다음의 구조적 위기는 1970년대에 발생했다.

1970년대의 위기

위기는 1970년대 초반 석유수출기구(OPEC)에 속한 나라들이 석유 가격을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은 세계경제에서 실업증가와 더불어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을 낳았다. 위기는 주요한 국제기업들의 이윤을 저하, 투자 감소, 경제성장률의 감소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 위기는 높은 물가와 실질임금의 하락, 인원축소, 생활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을 의미했다.

1970년대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는 컴퓨터 혁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컴퓨터 혁명

1970년대는 컴퓨터 기술의 발명과 이 기술을 상품과 용역 생산에 응용하는 흐름을 낳았다. 컴퓨터 기술이 생산과 사회 조직과 개인의 삶에 끼친 영향은 "컴퓨터 혁명" 혹은 "기술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 혁명" 혹은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부른다. 이러한 혁명은 우리 모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바꿔 놓았다. 예를 들면, 그것은 대규모 생산라인에 기초한 생산방식에서 더 유연한 생산방식으로 작업방식을 바꾸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과거에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기초를 바꾸어 놓았다. 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농업 생산, 사무실 근무, 경영과정, 소비방식, 교통, 통신, 보건, 교육, 문화, 미디어 그리

신자유주의의 주장들

신자유주의의 의제는 다음 사상에 기반해 있다.

- 시장이 지배한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인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는 사회 기반시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만 책임진다.
- 민영화. 때때로 국가재산의 구조조정이라 불린다. 국가는 민영화 계획을 통해서 국영기업 혹은 정부투자기관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팔아 없앤다.
- 규제철폐. 경제를 규제하는 법률을 과감하게 없애고, 가격통제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크게 줄인다.
- 정부지출 감소. 교육, 보건,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 지출을 줄인다. 이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상실을 뜻한다.
- 경쟁력 강화. 민간 기업은 시장에서 이윤을 위해 경쟁하여,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위해 경쟁하여, 노동은 기계와 경쟁한다.
- 외부지향성의 강화. 경제는 세계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한다.
- 무역 자유화. 관세를 낮고 외부경쟁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은 산업을 없앤다.
- 전문화.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전문화된다.
- 유연화. 작업장은 시장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구조조정, 할티화, 다운사이징(감량경영), 라이프사이징(right sizing, 적정경영)은 유연화와 상관있는 말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말들을 비공정함을 위한 새로운 용어로 간주한다.
- 개인주의.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조직할 자유. 만약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그 결과 사회는 더 많이 생산된 부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

신자유주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경을 넘어 어디서나 적용되는 경제발전의 보편적인 원칙과 관행이 있다. 매거트 대처(1979년~1992년 영국수상)와 로널드 레이건(1981년~1989년 미국대통령)이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를 발전시켰다.

고 복지를 바꾸고 있다.

컴퓨터 혁명은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보다 발전한 자본주의 단계를 위한 토대를 재조직하고 있다. 이 혁명은 세계화를 추진하고 그것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공격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은 언제나 경제 위기를 만들어 낸다. 오래된 생각과 정치적 방법들은 폐기되고, 다른 생각과 방법들이 자본주의를 재조직하기 위해 이용된다. 1970년대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 사상을 부활시켰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 민영화, 규제철폐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전략은 점차 세계 곳곳에서 정부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요소들은 1970년대 이래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과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은 국제경제(international economy)로부터 전지구적 경제(global economy)를 향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있다. 국제경제는 주된 행위자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연결된 국민경제들이다. 전지구적 경제는 국민경제가 정체성을 잃어 가면서 전지구적 경제에 통합되어 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세계화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세계화에 대해 얘기할 때 그것은 다음을 뜻한다.

-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같은 여러 조

용어해설

세계화 세계 곳곳의 나라, 산업, 기업, 단체들과 개인들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연결이 늘어나는 과정이다. 세계화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1970년대 이래 급격하게 발전되었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세계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단단하게 통합된 세계적 규모의 경제로 국민경제를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들

많은 단어가 세계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 단어들은 모두 비슷한 뜻을 갖고 있으며, 서로 뒤섞여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통합(integration), 수렴(convergence), 통일(unification), 집중(concentration),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적들은 점차 세계적인 세력들에 의해 지배당한다.

-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세계 규모에서 조직된다.
- 개인, 기업, 정치조직, 사회단체, 문화단체, 정부들간의 교류가 늘어난다.
- 국민국가는 이웃 나라와 더 많이 협력하며, 지역 경제 블록을 형성한다.
- 패스트 푸드, 청바지, 팝송 같은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자본이 만든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유행한다.

세계화의 효과는 무엇인가?

세계화는 세계 규모의 정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낳는다.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지만, 사회 정치적 효과는 전세계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추가로 세계화는 다음을 뜻하기도 한다.

1. 자본주의가 퍼진다.
2. 권력이 집중된다.
3. 세계 경쟁이 격화된다.
4. 정부의 힘은 작아진다. 혹은 과연 그런가?

1. 자본주의가 널리 퍼진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정치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89년과 1990년 소련과 동유럽의 중앙계획경제의 몰락이다. 이 몰락으로 세계 시장경제는 더 팽창했고, 이들 나라의 경제는 명령 혹은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세계시장이 과거에 폐쇄

되었던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제를 포함할 정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뜻한다. 1978년 세계 노동자의 1/3이 세계 자원의 경제활동 밖에서 살았다. 그러나 2000년까지 세계 노동자의 10% 이하가 세계경제에서 차단된 채 살아갈 것이다.

2. 권력은 더 집중된다.

부, 재산권, 권력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과 소수의 부자나라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세계 커피 생산의 75%를 네슬레와 제넬랄 푸드가 차지하고 있다.

3.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개방은 국민경제,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4. 정부의 힘은 작아지고 있다. 혹은 그런가?

세계시장의 성장으로 국민경제에서 국민의 입장을 위해 행동하려는 정부의 힘이 작아지고 있다. 자본 이동에 대한 각국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대한 통제도 약화되고 있다. 민영화, 관세인하, 외환관리 축소로 맘미암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

용어해설

중앙계획경제는 국가가 자신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생산된 자원을 소유하고 분배하고 할당하는 경제를 말한다. 사적 소유와 이용을 식은 계획경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는 시장이 가격을 통해 경제부문에서 생산된 자원을 배분하는 경제를 말한다. 사적 소유와 이용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가 도입한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 시장 세력들의 압력과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초국적 기업과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선진국 같은 국제기구들의 압력으로 일어난다.

정부의 힘이 작아지고 있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몇몇 정치학자들은 정부는 사실 새로운 세계경제를 다루는데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힘을 잃어버렸는가?

세계화 논쟁의 핵심은 국민국가 혹은 정부의 힘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힘이 전혀 없다. 정부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정부는 힘이 없다

용어해설

민족(nation)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민족은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쓴다.

국가(state)는 특별히 정해진 영토 안에 있는 정치권력이다. 국가 권력은 주로 헌법에 토대를 둔다.

최초의 민족국가(state)는 18세기에 만들어졌다. 국민국가의 역할은 복지, 국방, 질도와 통신에 대한 국가의 소유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부를 분배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용자, 규제자로서 역할 해 왔다.

이 견해는 세계화가 경제를 통제하는 국민국가의 힘을 잠식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컴퓨터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켰다.

-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의 국제적인 기업구조를 통해 각국 정부들의 경제활동 개입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국경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 초국적 기업의 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초국적 기업들은 각국 정부보다 국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에서 수행해온 적극적인 역할을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각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인하, 민영화를 통한 정부자산의 매각, 경제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의 폐지를 통해 무역을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정부의 힘을 약화시킨다.

- 정부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 정부는 정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력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EU)처럼 각국 정부는 정부간 연합을 피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 정부 정책은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

제기구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 이 견해는 미국 같은 몇몇 국가들은 아주 강력하고, 소말리아 같은 다른 나라들은 약하고 힘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이 견해는 세계화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이 점은 국민국가를 잠식한다는 주장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 개별 국가들은 여전히 정치상황과 경제를 관리하는데 결정적인 힘과 독립성을 행사하고 있다.

● 힘의 균형은 세계적인 세력들에게 결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 초국적 기업은 여전히 기업본부가 위치한 자기 나라를 토대로 움직인다. 개별 초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강한 국민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의 본부가 있는 나라들의 정부는 여전히 초국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몇몇 분석가들은 초국적 자본 생산의 70~75%가 자기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한다.

● 각국 정부는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IBRD)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화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협력하여 관세를 낮추려하지만 또한 여전히 관세인하를 막을 힘을 갖고 있기도 하다.

● 이 논쟁은 각국 정부의 무력함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지금까지 형성된 경제 블록들은 아직 각국 정부를 대신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각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정부간 경제협력은 또한 각국 정부들 사이에 긴장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들 사이의 협력이 각국 정부의 힘을 대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각국 정부는 쉽게 자신들의 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자국민의 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은 기술발전으로 강화된다. 모든 금융거래는 컴퓨터가 감지할 수 있으며, 통신은 검열될 수 있다.

논쟁 요약

두 가지 입장 모두 세계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여러 나라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칙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세계가 현재 개별 국민국가들의 힘을 뛰어넘어 발전하는 이행 상태에 있지만, 지역 정부 혹은 국제 정부가 건설될 정도로 새로운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국가가 지배하는 경제체제에서 세계적인 지배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덩치 큰 초국적 국가들이 이 과정에서 생겨날 것이다.

세계의 분쟁지역



이처럼 정부와 국민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개별 정부가 전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는 분열되고 있다

세계가 점점 통합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지만, 세계가 여러모로 분열되고 있다는 증거도 많다.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는 징조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국가에서 극심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2. 인종차별주의가 기승하고 있다.
3. 큰 국가들이 쪼개지고 있다.
4. 가난한 나라들이 무시당하고 있다.
5. 사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1. 국민국가에서 극심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 갈등이 풀리는 곳도 있지만,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82건의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국가 사이의 충돌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했다. 1993년에는 42개 나라에서 52건의 무력충돌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37개 나라가 정치 폭력을 경험했다. 이들 79개 나라 가운데 65개 나라가 제3세계에 속한다. 전세계 국가의 절반이 국내의 민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민을 초래한다. 1993년에 벌어진 무력충돌 가운데 절반이 10년 혹은 그 이상 계속된 것이다. 1983년에는 50만명 이상 탈출한 나라는 8개 나라였다. 1991

년 그 수는 31개 나라로 늘었다. 1993년에는 1억명 이상의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 내부 민족갈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6명 가운데 1명이 지뢰 때문에 불구자가 되었다.
 - 지이레에서는 80만명 이상이 쫓겨났다.
 - 구 유고슬라비아에서는 1991년 이래 13만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 르완다에서는 1994년 투치족의 인종청소로 20만에서 50만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인종차별주의가 가중하고 있다.

인종차별주의가 다시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선진국, 즉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심각하다. 영국을 예로 들면, 아시아인과 서인도제도 사람들이 인종차별의 폭력에 희생당할 확률이 백인보다 각각 50배와 36배 많다. 미국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다.

3. 큰 국가들이 쪼개지고 있다.

지난 십 년 동안 우리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많이 목격해왔다. 1990년 이후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잘게 쪼개졌다. 오늘날 세계에는 185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5개 나라가 1990년 이후 만들어졌으며, 국가 숫자는 늘고 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에리트레아가 이디오피아에서 떨어져 나왔다.

4. 가난한 나라들이 무시당하고 있다.

세계화 과정은 매우 불

아프리카의 분쟁지역



균등하며, 독일과 일본과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과 칠레와 브라질과 한국과 대만 같은 신흥공업국들과 상권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이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제한된 투자나 무역 실태를 볼 때 이 점은 명백하다.

5. 사회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사회가 몰락하고 있다. 에이즈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업이 늘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들 사이의 격차와 불평등이 증가하며,

환경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영향들은 세계 노동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산업사무노련(FIET) 제22차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는 2000년에는 기업과 산업과 국가 차원의 단체교섭을 뛰어넘는 국제적 성격을 가진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목도할 것이다."

각국 노동조합들 사이에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국제 연대를 건설할 방법은 이 책 곳곳에서 다뤄질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 1970년대의 경제위기는 세계통합을 가속화시켰다.
- 세계는 국민경제들이 더욱 탄탄하게 통합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불안정한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 컴퓨터 혁명이 세계화를 쉽게 만들었다.
- 국민정부는 힘을 잃고 있다.
- 세계는 분열되고 있다.
- 세계화는 부유한 나라들로 집중되고 있다.
- 가난한 나라는 무시당하고 있다.
- 민족 갈등과 정치 충돌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 노동조합과 기층 민중조직들 사이에 세계 차원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